

†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 님들~~ 작년 **2월 14일**을 기억 하시나요?

발렌타인 데이보다 더욱! 의미깊었던 날, 바로 하모니 발족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 하모니가 벌써 1살이 되었어요~~~ 

축하합니다! 짹짹!

지난 일년동안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속에, 신부님 및 많은 신자분들의 격려와 관심속에, 특히 주인공인 우리 하모니 님들의 사랑과 조화, 배려속에 하모니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로 아끼고 챙기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스레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주 맞이해요!

2월 12일 복음 말씀 [(녹) 연중 제6주일]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7-3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9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1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25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26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닢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27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29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30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31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야.’ 하신 말씀이 있다. 3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33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35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7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017년도 2월 둘째주 공지 드립니다.

<지난 행사>

사제관 가지치기 봉사 - 2/5

사제관 지붕을 덮고 있던 큰 나무의 가지들을 손질하고 정리해준 권창모, 김재욱, 안해준 형제님들, 감사합니다. 나머지 작업은 돌아오는 주일 (2/12)에 다같이 마저 끝내기로 해요~

하모니 1주년 기념 떡 봉헌 - 2/12

30세이상 청년 단체인 우리 하모니가 창단 후 지난 일년동안 주님과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속에, 그리고 하모니 개개인의 따뜻한 참여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하는 마음 한가득 담아 돌아오는 주일 (2/12) 교중 미사 후 전신자를 위한 떡 봉헌을 합니다. 예전 회합에서 논의된 바와같이 떡 봉헌비 \$300을 하모니에서 봉헌 하였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하모니가 앞으로 더더욱 사랑과 조화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 기도속에 기억해 주세요.

하모니 돌잔치 - 2/12

1주년을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2/12일 주일, 회합 후 사랑방에 모여 맛있는 피자과 함께 다과를 나누며 하모니 돌잔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음식/간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리의 생일 잔치에 꼭 참석해서 함께 기쁨을 나눠요!!

사랑방 업데이트

지난 주일 주보와 신부님 공지 사항에 공동체 시설 이용 신청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사랑방도 그러한 공동체 시설중의 하나로 현재는 주일 미사 후에 하모니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으니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요일, 다른 행사로 사용 시에는 미리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트락회도 사랑방 사용에 관심 있어하니 추후 양측 회장단이 협의해서 신부님께 보고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덕분에 하모니가 밖에서 모임 장소를 찾지 않고, 미사 후 가깝고 아늑하며 편안한 곳에서 모일 수 있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따금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고 영화 관람도 하며 즐겁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모임에 적당히 함께 하면 흥을 돋우는 주류가 때론 과해질때도 있기에, **모임 후 귀가시 음주 운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는 신부님의 우려와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즐겁고 가볍게 한잔 하고, 귀가시에는 반드시 멀쩡한 상태가 되도록 스스로 조절하고 서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을 내집같이 아끼며 사용하는 만큼 사랑방을 훈훈하게 만드는 우리들도 건강히,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 같이 신경써 주세요!

오클랜드 교구 병자의 날 미사 - 2/11(토)

오클랜드 교구 병자의 날 미사가 다가오는 **토요일 (2/11) 오전 11시에 메릿 호숫가 근처에 위치한 주교자 성당**에서 있습니다. 마이클 주교님과 최 주임 신부님께서 미사를 공동 집전하시며 미사 중 병자 안수가 있습니다. 병자 안수는 육체의 아픔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 그리고 마음의 평화도 함께 기억하는 기도이니 시간되는 님들 모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교자 성당을 방문해보지 못한님들, 함께 방문해서 미사도 드리고 미사 후 함께 식사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청년 창세기 성경모임

조마오로 수녀님과 함께하는 청년 창세기 성경 모임에 함께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지난 약 40년간 창세기 모임을 지도해 주신 조 수녀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니, 관심있는 분들 꼭 신청해 주세요!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첫 모임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이니 연락 바랍니다.

성당 헬프 데스크

성당 사목회에서 어르신들의 영문 편지(공문) 내용등을 읽고 설명해 드리는 헬프 데스크를 추진중에 있으며 청년들의 봉사를 권유 하셨습니다. 영어로 된 공문서 내용을 잘 몰라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들이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집니다. 매

월, 미사 후 약 1시간 정도 청년들이 번갈아가며 봉사하면 좋을듯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합동미사 및 전신자 사진 촬영 - 2/26 주일

2/26일 주일은 아침 8시 미사가 없으며 11시 교중미사 후에 전신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미사 시간대가 달라 (아침, 교중 미사) 서로 만날 기회가 없는 분들, 그리고 매주 만나도 얼굴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공동체 일치'를 위한 행사이니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여 꼭 사진을 찍고 신부님께서 주시는 점심 식사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날짜를 공지해 **26일을 사진촬영 날로 짚!**해서 반드시 참여하라는 신부님의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꽃단장하고 오세요~ ^^

만남의 성경모임 - 수녀원 방문 (3/25)

만남의 성경 마지막 모임이 Fremont에 위치한 수녀원 방문과 함께 **3월 25일 (토요일) 오후 2:30**에 있을 예정입니다. 하모니, 트랙회, 그리고 관심있는 '자매님'들 모두가 초대 되었으니 (형제님들, 죄송합니다~ ^^;) 관심있는 분들 연락 주세요.

<리마인더>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4a8Q4J3Kf0fw>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tel:1-510-553-9434)
Web: www.oakcc.org